

기업·부산銀, '주52시간' 조기도입 타 은행은 특수직군 범위싸고 난항

(IT·해외투자 등)

IT·트레이딩·해외투자 부문 등 적용범위 선정에 노사조율 난색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지만 타 산업군에 비해 은행권은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금융업의 경우 특례업종외의 규정으로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은행권의 조속한 움직임을 독려하면서 조기시행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직군별 조기도입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은행은 단 두 곳 뿐이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제외되는 특수직군(IT·트레이딩·해외투자 부문 등)의 적용 범위 선정에 두고 노사와의 의견 조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중 내달부

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는 은행은 부산은행과 기업은행 뿐이다.

부산은행은 이달부터 오후 6시 '조기퇴근'과 오전·오후 2시간씩 '집중근무제'를 도입했다. 김해공항이나 국제여객터미널 등 특수점포는 인력을 충원하고 탄력근무나 교대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이달부터 'PC 오프제'를 통해 영업점과 본점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한 시간씩 보장하고 있다. 또 오후 6시를 넘겨 근무하려면 연장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올해 전반기부터 정부는 은행권의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을 부추기고 있지만, 은행권은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은행권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아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4월 김영주 고용노동

부 장관이 은행권에 주 52시간 근무제의 선제적 도입을 종용하면서 은행들은 조기 도입에 적지않은 부담감을 느껴왔다.

당초 일부 은행들은 업계의 분위기를 살피며 올 하반기내 시행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특히 은행권이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 과정에서 특수직군의 적용 범위를 선정하는데 난관에 봉착했다.

최근 금융산업 사용자 협의회와 금융산업 노동자조합은 52시간으로 업무시간이 부족한 특수 직군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을 협상을 벌이다 합의에 실패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전반이 노사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직군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 자



은행권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고심을 하고 있다. 특수직군의 범위 선정을 두고 노사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에서 영업직원이 고객 응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 측은 사측이 제시하는 특수 직군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입단협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달 15일까지 4차례의 대표단 교섭을 포함해 총 28번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시중은행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항점 등 일요일에 문을 여는 등 특수영업점에 대한 직무 분석과 함께 52시간 근무제 도입시기나 범위를 검토 중이다.

은행 측은 특수범위로 인사와 예산, 회계 관련 부서를 비롯해 전산개발이 포함되는 IT, 트레이딩, 해외투자, 여신심사 직군과 공항점포 등 특수점포 인력, 그리고 운전기사, 청원경찰, 콜센터를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특수 직군의 범위를 두고 은행 측과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 입단협에 넣은 조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직군별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52시간 근무제를 선별적으로 직군에 적용하자는 게 노조 측의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KEB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

현지 금융전문지 '최우수 은행' 1위 선정

KEB하나은행은인도네시아현지법인인 '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이' 현지의 금융전문지인 '인베스터(Investor)'지로부터 최우수 은행(Best Bank) 1위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은 지난달 말 인베스터지가 주최한 '2018 최우수 은행 시상식(2018 Best Bank Awards)'에서 'Buku 3' 그룹에 속한 총 21개의 은행 중에서 1위로 선정됐다.

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1년과 2016년 및 2017년에도 인베스터지로부터 최우수 은행(Best Bank)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특히 순위 없이 상위 3개의 은행을 선정하던 지난해까지와는 달리 금년도부터는 1위, 2위, 3위로 구분해 진행된 시상식에서 한국계 은행로서는 최초로 1위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인도네시아에는 총 115개의 은행이 있으며, 이를 자본금 규모를 기준으로 'Buku 1'(소형은행)에서 'Buku 4'(대형은행)까지 총 네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



이화수 인도네시아 KEB 하나은행 장(사진 왼쪽)이 시상자인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공사 파우지 이치산(Fauzi Ichsan) 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 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은 말레이시아계 은행인 'Maybank', 싱가포르계 은행인 'Bank OCBC NISP' 등과 함께 중대형은행인 'Buku 3' 그룹에 속해 있다.

인베스터지는인도네시아KEB하나은행이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자본적정성 등의 총 11개 항목에서 모두 뛰어난 역량이 인정되어 최우수 은행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kmh@

신한은행-케이에프코리아

국내외 부동산 투자 MOU

신한은행은 국내 및 해외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케이에프코리아(Knight Frank Korea)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케이에프코리아와 함께 ▲해외부동산 투자컨설팅 ▲해외부동산 투자세미나 개최 지원 ▲외국인투자자 대상 국내부동산 매입 컨설팅 등 양사 프로그램에 협력하고 고객 유치를 위한 외환사업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에프코리아는 나이트프랭크 글로벌 네트워크(Knight Frank Global Network)의 한국법인으로 국내 및 해외고객을 위해 부동산거래, 관리, 컨설팅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정지호 신한은행 외환사업본부장(왼쪽 두번째)과 이희성 케이에프코리아 대표이사(오른쪽 두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하는 모습. /신한은행

수행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개인과 기관의 해외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외부동산 투자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기축법 일몰... 워크아웃기업 법정관리 우려

금융위, 금융협 등과 대응방안 논의 "선제·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필요"

'워크아웃' 제도를 뒷받침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축법)이 실효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하는 한편, 기축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기축법 일몰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기축법은 2001년 제정된 이후 5차례 한시법으로 운영됐다. 지난달 30일 법의 효력이 만료돼 4번째 실효기를 맞게됐다.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는 기축법이 사라지자 당장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으로 분류된 회사가 법정관리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모든 금융권, 즉 채권금융기관 전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한 운영협약을 만들어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최대한 공동 관리하기로 했다.

기존의 채권은행협약은은행권만 포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김감원, 금융권 협회,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기축법 실효에 따른 방향을 논의하고 채권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하는 반면, 이번에 마련되는 운영협약은 모든 금융권을 포괄한다. 다만 기축법 적용 대상이던 일반 금융채권자는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 주 중 태스크포스(TF)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협약안을 마련하고, 각 협회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채권은행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과 신용위험평가가 계속 이뤄질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부실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기축법을 통한 선

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축법이 조속히 제입법 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기축법은 금융당국이 채권단을 통해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관치(官治) 금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기축법 제·개정 과정을 통해 기업의 재판청구권 보장, 기업에 워크아웃 개시신청권 부여, 채권행사유예 등 금융당국의 개입요소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유재희 기자

"올 하반기 '디지털 KB' 추진 적기"

허인 KB국민은행장 생존전략 강조

허인 KB국민은행장(사진)은 2일 "이번 하반기는 '디지털 KB'를 향한 추진력 강화 방안을 보다 깊이 고민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허 행장은 이날 정기조회사를 통해 "KB국민은행도 디지털 금융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사적 대비를 더욱 서둘러야 할 때"라며 "KB가 고객이 첫 번째로 선택하는 디지털 금융 파트너가 되는 것은 절체절명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화는 온라인과 모바일의 비대면

채널을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인력, 프로세스, 문화 등 조직 전체에 걸쳐서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KB의 디지털"을 제대로 구현하고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기술의 적극적인 확보와 디지털 인재의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부 육성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역은 외부의 우수 인재들을 영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화에 맞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원실과 부장실을 축소하고, 직원 중심으로 공간을 전면 재배치할 예정이다.



디지털과 함께 성장동력으로 꼽았던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허 행장은 "글로벌은 런던 현지법인의 지점 전환으로 '런던-홍콩-북경-동경-뉴욕'을 잇는 KB의 글로벌 비지니스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됐다"며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도 적극 모색 중에 있어 하반기와 내년에는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